

冊禮都監儀軌와 冊禮圖屏에 나타난 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이민주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유송옥

目 次

I. 序 論	1. 王世子의 服飾
II. 冊禮都監儀軌의 種類와 儀式節次	2. 王의 服飾
1. 冊禮都監儀軌의 種類	3. 宗親 및 文武百官의 服飾
2. 冊封禮의 儀式節次	4. 班次圖에 나타난 身分別 服飾
3. 繪畫에서 보이는 冊封禮	參考文獻
III. 班次圖와 冊禮圖屏에 나타난 服飾研究	ABSTRACT

I. 序 論

冊禮란 王世子, 王世孫, 王世弟, 및 王妃와 世子
嬪등을 冊封하는 儀式¹⁾이다. 이러한 宮中의 行事
는 그 節次를 진행하기에 앞서 都監廳을 설치하여
행사의 거행을 주관하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儀
軌廳을 두어 그 行事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
였다.²⁾ 책례는 五禮중 嘉禮에 속하는 것으로 冊禮
를 주관하는 임시관청인 冊禮都監을 설치하였으
며, 행사 이후에는 冊禮都監儀軌를 제작하여 행사
에 관한 전말과 의전 문제를 기록하였다. 의궤에
는 행사에 소용된 물건에 관한 상세한 物目과 匠
人 名單, 賞典에 이르기 까지 具體的으로 記錄되

어 있으며, 행사의 節次를 規定한 儀註중 한 장면
을 반차도로 그려 함께 보전하였다. 특히, 朝鮮朝
왕권의 特徵을 象徵的으로反映하는 중요한 存在
였던 王世子의 冊封節次를 수록한 王世子冊禮都
監儀軌에 대한 기록으로는 奎章閣에 31건이 있으
며, 그 중 王世子 冊封에 대한 기록은 총 11건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것은 1609년의 蔽仁王后尊號大
妃殿上尊號中宮殿冊禮王世子冊禮冠禮時冊禮都監
儀軌이다.³⁾ 그러나 『實錄考出』에는 이미 1421년
에 世子冊封都監이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⁴⁾ 왕세자의 책립을 위하여 도감이 설
치된 것은 조선 초기로부터 확인되며 그 이전의
의궤는 王亂을 前後해 燒失된 것으로 보인다.⁵⁾

1) 『民族文化大百科辭典』,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 764

2) 劉頌玉,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서울 : 修學社, 1991 : 1

3)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禮典 儀軌冊禮, 서울 : 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 394~396

4) 『實錄考出』 : 왕세자와 왕비등의 책봉에 관련된 의전과 과정을 기록한 실록의 기사를 발췌하여 모은책, 奎章閣所藏

5) 劉頌玉,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서울 : 修學社, 1991 : 1

본 연구에서는 1784년에 행해진 文孝世子의 冊封禮를 『文孝世子 受冊時冊禮都監儀軌』⁶⁾와 冊禮圖屏⁷⁾을 중심으로 회화에 나타난 복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冊禮都監儀軌의 種類와 儀式節次

1. 冊禮都監儀軌의 種類

王世子는 나라의 근본을 정하고 寶位를 繼承하는 인물로 王世子 冊禮都監儀軌는 奎章閣, 藏書閣, 巴리國立圖書館에 소장⁸⁾되어 있으며 그 중에

〈표 1〉 朝鮮時代 王世子 冊禮都監儀軌

	연 도	크 기	규장각 번호	반 차 도	기 타
1. 懿仁王后尊號大妃殿 上尊號中宮殿冊禮王世子冊禮冠禮時冊禮都監儀軌	1609년(光海君1)	44×33.3	13196	王世子冠禮時班次圖	彩色圖
2.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	1645년(仁祖23)	45.5×33.8	13062, 13063		彩色圖 筆寫本
3. 顯宗世子冊禮都監都廳儀軌	1651년(孝宗2)	44.5×35	13068~13070		彩色圖 筆寫本
4. 肅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1667년(顯宗8)	48.1×33.5	13076, 13077		筆寫本
5. 景宗世子冊禮都監儀軌	1690년(肅宗16)	47.2×35	13091	班次圖 12면	彩色圖
6. 真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1725년(英祖1)	45.6×32.5	14909	班次圖 10면	彩色圖 筆寫本
7. 莊祖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1736년(英祖12)	46.1×33.4	13108	班次圖 10면	彩色圖 筆寫本
8.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1784년(正祖8)	46.8×33.1	13200	班次圖 11면	筆寫本
9.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1800년(正祖24)	45×33	13119~13121		彩色圖 筆寫本
10. 文祖王世子冊儲都監都廳儀軌	1805년(純祖5)	45.3×31.8	13125~13129, 14906	班次圖 12면	彩色地圖 筆寫本
11. 純宗王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1875년(高宗12)	45.3×32.4	13168의 1.2, 13169~13172	班次圖 12면	筆寫本

6) 『文孝世子 受冊時冊禮都監儀軌』, 奎章閣所藏

7) 文孝世子冊封圖, 서울大學校博物館 所藏

8) 박병선, 『朝鮮朝의 儀軌』,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13~22

서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王世子冊禮都監儀軌는 〈표 1〉과 같다. 王世子冊禮만을 단독으로 기록한 儀軌는 顯宗世子冊禮都監儀軌와 肅宗世子冊禮都監儀軌, 景宗世子冊禮都監儀軌, 真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莊祖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文祖王世子冊儲都監都廳儀軌, 純宗王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가 있으며, 冠禮와 冊禮를 동시에 같이 기록한 儀軌로는 懿仁王后尊號大妃殿上尊號中宮殿冊禮王世子冊禮冠禮時冊禮都監儀軌와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가 있으며, 王世子와 嫔宮의 冊禮를 동시에 기록한 儀軌로는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가 있다. 이는

儀式節次를 간략히 하여 시간과 경비, 물자를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冊封禮의 儀式節次

世子 冊封의 9가지 禮式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는 좋은 吉日을 擇하여 期日에 앞서 宗廟와 社稷에 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청에 나가 冊文을 선포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례하는 箋文을 올리는 것이고, 넷째는 王비에게 朝謁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百官들이 箋文을 올려 陳賀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百官들이 世子에게 賀禮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길일을 택하여 宗廟에 拜謁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百官들을 모으는 것이고, 아홉째는 命婦들을 모으는 것이다.⁹⁾

이렇듯, 많은 儀式 중에서 문호세자의 冊封禮는 세자의 나이가 어린 만큼 실제에 있어서는 의식 절차를 많이 생략하는 것에 따랐으나, 조종조에서 예법을 마련한 성대한 뜻을 상세하게 갖추어 의식 절차의 순서만은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의궤에 실도록 하였다.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에 수록된 冊封儀式과 節次를 儀註에서 보면, 教命冊印內入儀, 冊王世子儀, 王世子自內受冊儀, 冊禮後百官賀, 王世子儀, 親臨陳賀頌教儀, 王大妃殿百官進致詞表裏儀, 惠慶宮進致詞表裏儀, 中宮殿百官進致詞表裏儀가 기록되어 있다.¹⁰⁾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文孝世子의 冊封禮는 正祖 6년 9월 7일 宮人 성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¹¹⁾ 11월 27일 원자의 호칭을 받았다.¹²⁾ 冊封禮를 위한 豫行演習이 8년 7월 22일 初度習儀, 同

月 24일 再度習儀, 8월 초1일 三度習儀의 3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8월 초2일 辰時에 冊禮가 仁政殿에서 행해졌고, 同日 午時에 受冊禮가 重熙堂에서 행해졌다.¹³⁾ 正祖8년 8월 을유일(1784)에 원자를 책봉하여 3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冊封¹⁴⁾되었으며 10년 7월 19일 5세의 나이로卒하였다.¹⁵⁾

3. 繪畫에서 보이는 冊封禮

繪畫에 나타난 文孝世子의 冊封儀式 및 節次로는 冊禮都監儀軌班次圖와 冊禮圖屏이 있다.

冊禮都監儀軌班次圖에서 묘사하고 있는 教命冊印內入儀는 王의 教命과 王자를 世子로 冊封하는 문서인 冊文, 王世子의 圖印을 王께 보여주기 위하여 宮闈로 들여가는 儀禮를 표현한 것이다. 班次圖의 내용은 儀式節次를 기록한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의 儀註의 내용과 일치하며, 각 시대에 따른 儀典內容의 變化를 반영하고 있다. 내입의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과정에서는 國朝五禮儀等 예서에 실린 배반도의 구성이 토대가 되었으며, 모든 행렬은 王이 있는 전각을 향하게 설정되었으며, 인물 및 儀仗의 위치와 순서도 의전상의 원칙과 실제대로 포치되었다. 행렬 중앙의 일부 인물과 동물은 뒤쪽에서 바라보는 평면적인 유팽형으로 그려졌고, 그 左右의 인물과 의장들은 좌우에서 바라다본 측면도로 그려졌다. 그리고 鞲와 鞚, 平交子등의 기물은 유팽을 위주로 한 옆모습이나 약간 위쪽에서 내려다 보아 그 정면이나 후면이 약간 보이도록 그려 입체감을 내었다.¹⁶⁾

文孝世子 冊禮圖屏은 8폭의 屛風으로 현재는 각

9) 『正祖實錄』卷十八 八年 七月 庚辰

10)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儀註39~52쪽

11) 『正祖實錄』卷十八 六年 九月 乙酉

12) 『正祖實錄』卷十八 六年 十一月 庚申

13)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2弩 參照

14) 『正祖實錄』卷十八 八年 八月 乙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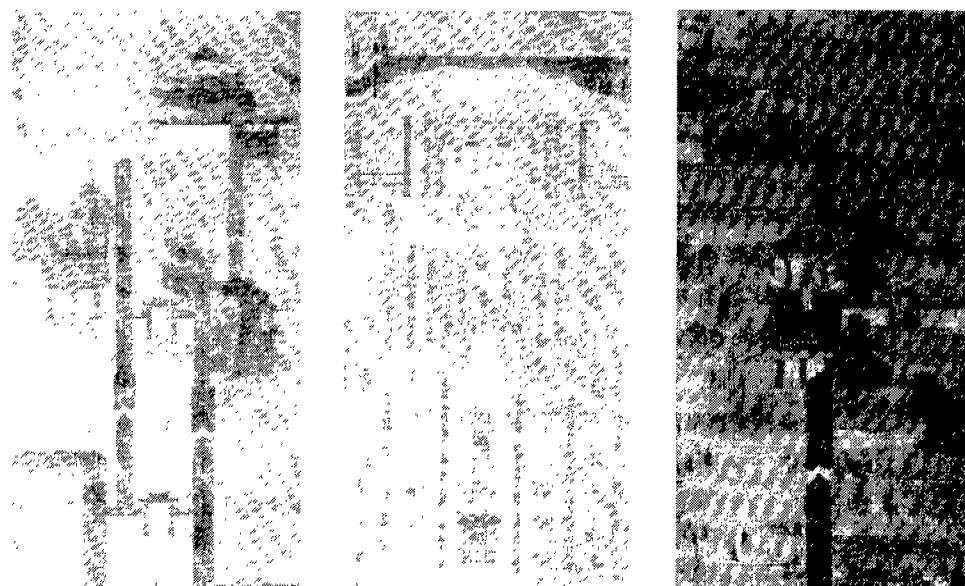
15) 『正祖實錄』卷二十 十年 七月 十九日

16) 박은순, 「朝鮮時代 王世子 冊禮儀軌 班次圖 研究」, 『한국문화』, 서울 : 한국문화연구소, 1993 : 560

폭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표구 되어 있다. 첫째 폭에는 序文이 記錄되어 있고 2, 3, 4폭은 重熙堂에서의 儀禮가 5, 6, 7폭은 仁政殿에서의 행사 장면이 3曲씩에 걸쳐 이루어 져 있으며, 마지막 폭에는 世子 侍講院 所屬 25名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



(그림 1) 文孝世子冊禮圖屏



(그림 2) 王世子自內 受冊圖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의 王世子內 受冊儀에서¹⁷⁾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文孝世子冊禮圖屏의 2, 3, 4폭은 相禮의 인도로 拜位에 나아간 王世子가 다시 賛儀의 인도로 受冊位에 오르는 장면이 그려진 것으로 王世子自內 受冊圖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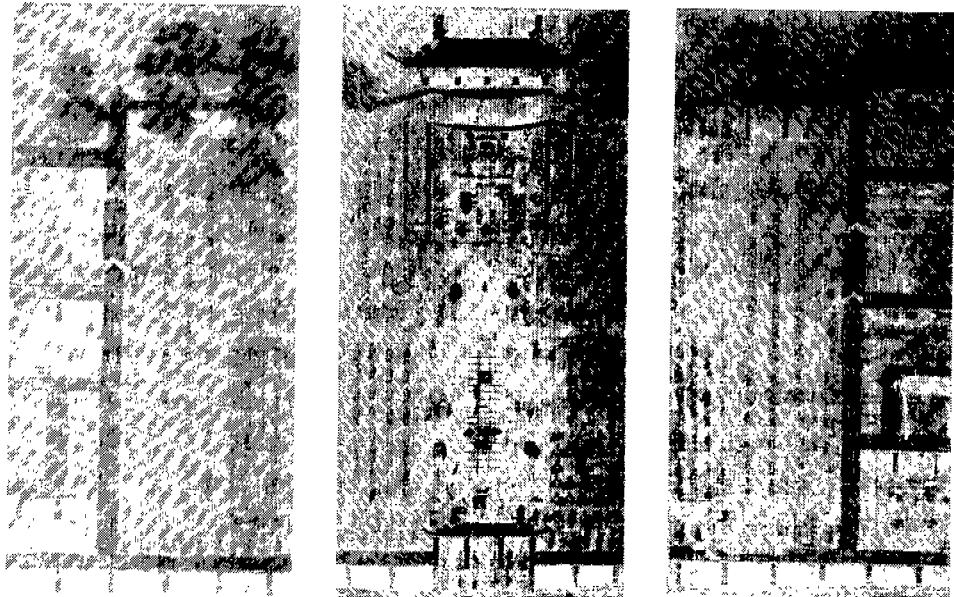
인다(그림 2).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의 親臨陳賀頒敎儀를 보면 宗親 文武 衙官이 각각 그 服(4품이상은 朝服 5품이하는 黑團領)을 갖추며 모든 호위하는 관원이 들어와서 어좌의 뒤와 殿內의 동쪽과 서쪽에 늘어서고 다음에 承旨가 殿內의 동서로 나

뉘어 들어와서 부복하고 史官은 그 뒤에 있고 그 다음에 司禁이 전계의 위에 나뉘어 서고 引儀가 종친 문무 2품이상을 나뉘어 인도하여 동서편의 문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있으면 전의가 사례를 아뢰다¹⁸⁾는 기록으로 文孝世子冊禮圖屏의 5, 6, 7폭

17)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王世子內 受冊儀 43~44쪽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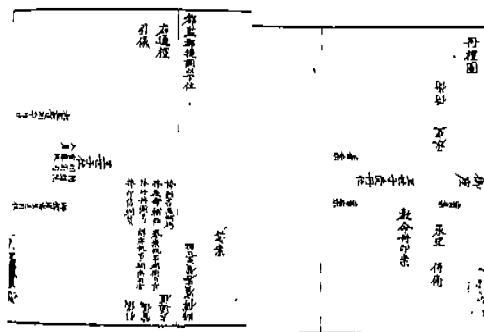
18)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親臨陳賀 頒敎儀 46~48쪽 參照



(그림 3) 親臨陳賀 頒教圖

은 종친, 문무백관이 끓어 앉아 있는 장면을 그린
親臨陳賀 頒教圖로 보인다(그림 3).

또한 이러한 행사를 기록하고 있는 의궤의 체제가 정조 말년(1800)에 크게 변하여 의궤 뒷에는 문자로 圖解된 排班圖식의 冊禮圖¹⁹⁾가 실리게 되었다. 따라서 회화적인 차원에서의 반차도와 문자화된 배반도(그림 4)가 같이 실림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책례의식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 冊禮圖

III. 班次圖와 冊禮圖屏에 나타난 服飾研究

1. 王世子의 服飾

王世子는 班次圖와 冊禮圖屏(冊封圖)에서는 실제 보이지 않고 그 자리만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의 儀註에서 보면 왕세자는 雙童笄, 空頂幘, 七章服을 갖추고 祇迎位에 나아간다고 기록²⁰⁾되어 있으며, 冊禮圖屏의 序文에서도 “低下具空頂幘七章服拜 受冊于重熙堂”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國朝五禮儀』의 冊王世子儀에서도 왕세자는 면복을 갖춘다²¹⁾고 되어 있다. 冕服이란 8旒冕冠과 七章服으로 문효세자 책봉식의 복식과는 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歷代 王世子冊禮都監儀軌를 살펴본 결과 왕세자가 冠禮를 치른 후 冊封을 받는 경우에는

19)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134~135頁 參照

20)『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儀註 43 条 參照

21) 『國朝五禮儀』, 卷之 4 嘉禮, 冊王世子儀。

冕旒冠을 착용하였으나 왕세자가 어린 나이로 미처 冠禮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는 雙童笄와 空頂幘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冊禮와 冠禮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던 것을 여러 실록을 고찰해본 결과 확인 할 수 있었다.

中宗 15년의 冊禮와 冠禮의 순서에 대해 예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世子 冊封 전에 冠禮하는 일을 이미 의정부 당상과 같이 의논해서 아뢰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 한 즉 冠禮란 예 중에서도 큰 일이기 때문에 옛 사람들이 중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 옛 사람의 바른 예를 거행하려 하면서 어린 나이에 시행한다면 어떻게 성인을 資勵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역사를 고찰해 보아도 太子를 책봉한 뒤에 관례한 자가 매우 많은데 이는 책봉은 일찍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관례는 구차스럽게 행해서는 안된다²²⁾고 한 것으로 冠禮를 중히 여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仁祖 2년에는 예조에서 아뢰길, 『五禮儀』를 보면 冠禮는 3권에 수록되어 있고 冊封禮는 4권에 들어 있으며 구례도 관례의 선후가 모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를 먼저 하고 책봉례를 뒤에 하는 것이 순편하다.²³⁾고 하여 관례를 먼저 행하고(정월 21일) 책봉례를(정월 27일) 다음에 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세자의 관례전 책봉시의 복식에 대해서는 中宗 15년 예조에서 아뢰길, 杜氏의 『通典』 및 『大明會典』에 모두 책봉하고 즉위하는 예가 실려 있는데 쌍동계라고만 일컬었고 그 제도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증할 수는 없으나 이는 반드시 동자의 儀具로서 오늘날의 編髮과 같을 것이며, 또 전날의 史書에 2~3세로 책봉받은 자가 있는데, 이는 필시 책봉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안고서

면복을 앞에 진열해 놓고 거행했음이 틀림없다고 하였으며, 더구나 『五禮儀』를 고찰한 즉 王世子 冠儀에 '관례를 마치고 조알할 때에 돋는 사람이 印을 지고 있다.²⁴⁾고 논의한 기록으로 관례전에 책봉을 받는 경우와 관례후에 책봉을 받는 경우 모두 七章服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冠에 있어서는 冠禮를 치르지 않은 경우, 顯宗 7년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엊그제 본조의 계사로 인해 인묘조에서 책례할 때의 冠帶와 服色을 실록에서 참고해 내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관의 서계를 보니, 이에 따라 면복의 차림으로 예를 거행해야 하겠으나 그 서계 가운데 삼공 및 예조가 관례를 의논하였는데 하나는 『杜氏通典』의 皇太子具服遠遊冠 대목의 註에 「만약 아직 관례를 치루지 않았으면 雙童笄로 한다.」 하였으니, 이로 보건대 관례를 치루지 않고 책봉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착용하는 관이 있으나 그 제도는 지금 고찰 할 수가 없다.²⁵⁾는 기록으로 冠禮의 전후에 따라서 冊禮時의 冠의 형태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王世子의 冊禮와 冠禮의 순서는 服飾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번의 논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효세자의 冊禮時 冠은 冠禮를 행하기 전으로 雙童笄, 空頂幘인 것이다.

空頂幘은 당시 中國에서 椎童들이 束髮하고 양각 혹은 일각으로 된 건의 형태로 황태자는 쌍옥도(잔)를 옆으로 건의兩傍에 끼어 꽂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²⁶⁾ 이는 국말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므로 문효세자 수책시 착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공정책²⁷⁾도 (그림 6)의 영친왕이 착용하고 있는 공청책과 같은 형태일 것이라 생각된다.

王世子의 七章服을 『國朝五禮儀序例』에서 보면

22) 『中宗實錄』卷三十八十五年三月丙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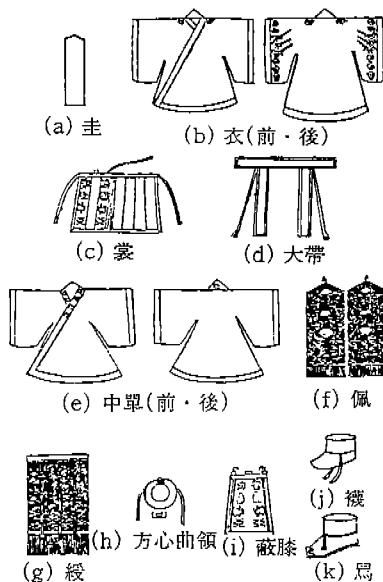
23) 『仁祖實錄』卷七二年十二月辛巳

24) 『中宗實錄』卷三十八十五年三月丙申

25) 『顯宗實錄』卷十三八年正月戊子

26)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3 : 299

27) 金英淑, 『朝鮮朝末期 王室服飾』, 서울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 107



(그림 5) 王世子 冕服圖

그제도는 구장복과 동일하며 衣어깨 위에 火 1, 소매의 뒤에 火 2, 華蟲 3, 宗彝 3을繪했다. 중단도 구장복과 같으며 故紋이 깃에 좌우로 4개씩 背領에 1가 繪되어 있다. 裳도 九章服과 그 제양이 같으며 藻, 米, 穩, 故의 4장문이 수놓아져 있다. 佩, 綏, 方心曲領, 蔽膝, 襪, 翳의 제도가 구장복과 같다.²⁸⁾

2. 王의 服飾

王의 服飾도 班次圖나 冊封圖에는 보이지 않으나 實錄을 고찰해 보면 王의 服飾이 명백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王세자 책봉시 王의 복식을 보면 英祖 1년, 王은 吉服차림으로 인정전에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는 國恤中이라도 服色은 吉服으로 한다는 기록이 있다.²⁹⁾ 英祖 12년

- 28) 『國朝五禮儀序例』卷之1 吉禮 祭服圖說
- 29) 『英祖實錄』卷四 一年 三月 戊午
- 30) 『英祖實錄』卷四十一 一年 三月 己酉
- 31)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34쪽 參照
- 32) 『國朝五禮儀』卷之4 嘉禮 冊王世子儀
- 33)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儀註 47쪽 參照
- 34) 『經國大典』官服構造

(그림 6)
空頂幘(영진왕)

에도 王은 면복을 입고 선정전에서 王세자를 책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³⁰⁾ 또한, 仁祖조에서도 王은 명정전에서 면복차림으로 王世子를 冊封하였다. 본研究에서 알아 보려고 하는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의 禮闈에 王은 면복을 갖추고 인정전에 나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다.³¹⁾ 따라서 授冊時 王의 복식은 면복임을 알 수 있다.

3. 宗親 및 文武百官의 服飾

『國朝五禮儀』의 冊王世子儀에 나타난 文官의 服飾은 朝服이며, 武官은 器服, 전정에 들어오는 사람은 조복으로 되어 있다.³²⁾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에는 宗親 및 文武百官의 服飾은 4품이상은 朝服이며 5품이하는 黑函領이라고 기록³³⁾되어 있으나 班次圖에서는 朝服과 常服의 모습만 보이고 있으며, 冊禮圖屏에서는 朝服과 常服, 器服(戎服)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文武百官의 복식은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1) 朝 服

『經國大典』에 규정한 조복의 구성을 보면 金冠, 赤綃衣, 赤綃裳, 白綃中單, 赤綃蔽膝, 大帶, 佩玉, 綏, 襪, 翳, 紩로 되어 있다.³⁴⁾ 이렇게 국초에 제정



(그림 7-a)

班次圖의 金冠 朝服



(그림 7-b) 冊封圖의 金冠 朝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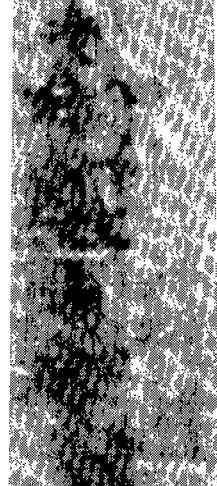
된 조복의 규정은 국말까지 그대로 지켜져 왔으나,班次圖에서 흑화를 신고 金冠朝服을 착용한 百官의 모습이 보이며(그림 7-a), 冊封圖에서도 흑화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b).

(2) 常服(團領)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는 상복은 紗帽, 團領, 帶, 白襪, 挾金靴로 구성되어 있으며³⁵⁾ 처음에는 堂上官만이 단령에 흥배를 가식하였으나 연산군 11년(1505) 당하관도 흥배를 달았다. 衫의 색은 1품에서 정 3품까지는 紅袍이며, 종 3품에서 6품까지는 青袍이고 7품에서 9품까지는 緑袍였다. 이것은 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³⁶⁾ 班次圖에서는 部官이 紗帽에 胸背를 가식한 緑團領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그림 8-a), 冊封圖에서는 사모를 쓰고 흥배를 가식한 緑단령을 입고, 흑화를 신고 겉을 찬 모습이 보인다. 緑단령의 색상에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8-b). 班次圖와 冊封圖에 나타난 흥배는 모두 새인 것으로 무관도 새를 즐겨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a) 班次圖의 常服



(그림 8-b) 冊封圖의 常服

(3) 戎服(戎服)

戎服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笠, 帖裏, 紅廣帶, 木靴이다. 『續大典』에서 보면 品階를 색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笠은 堂上官이 紫笠에 貝纓을 하였고, 堂下官은 黑笠에 晶纓을 하였으며 철릭은 堂上官은 남철릭, 堂下官은 청현색 철릭(왕 교외 등 가시에는 홍색 철릭)을 착용하였다.³⁷⁾ 班次圖에서는 宗親 및 文武百官의 戎服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冊封圖에서는 주립에 청현색 帖裏가 보이고 있으며(그림 9-a), 堂下官에 해당하는 黑笠에 청현색의 帖裏도 착용하고 있다(그림 9-b). 또한 黃笠에 홍철릭이 보이고 있다(그림 9-c). 帖裏에는 홍황대가 보이며 환도를 어깨에 매듯이 좌측 등 뒤로부터 앞으로 차고 있으며, 還刀와 같은 쪽으로 筒箇를 매고 있다. 또한 황립에 홍철릭이 보이며 甲冑도 보인다(그림 9-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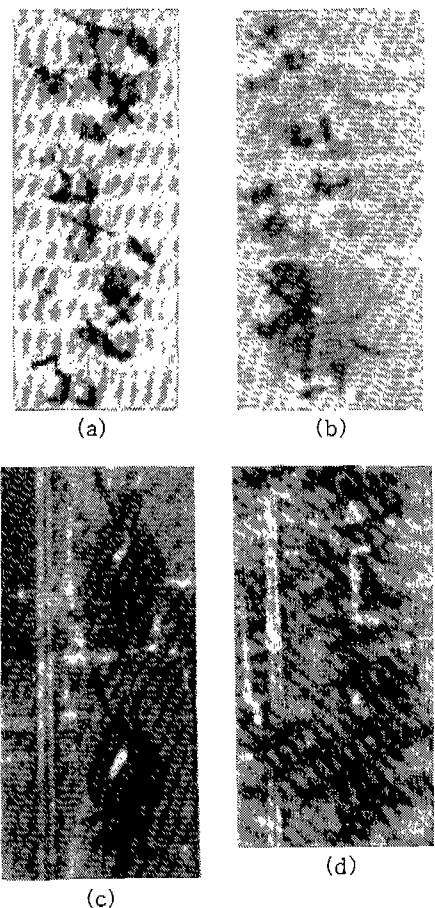
4. 班次圖에 나타난 身分別 服飾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한 班次圖와 冊封圖의

35) 『經國大典』官服構造

36) 劉頌玉, 『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研究』,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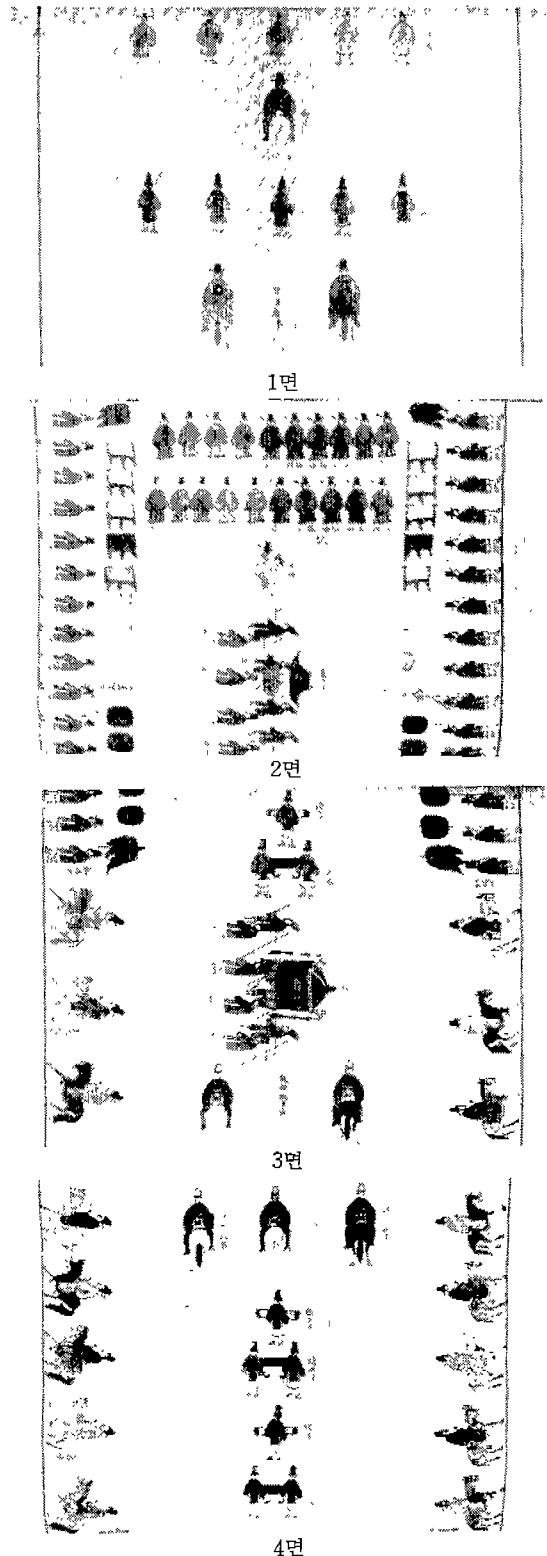
37) 『續大典』禮典 儀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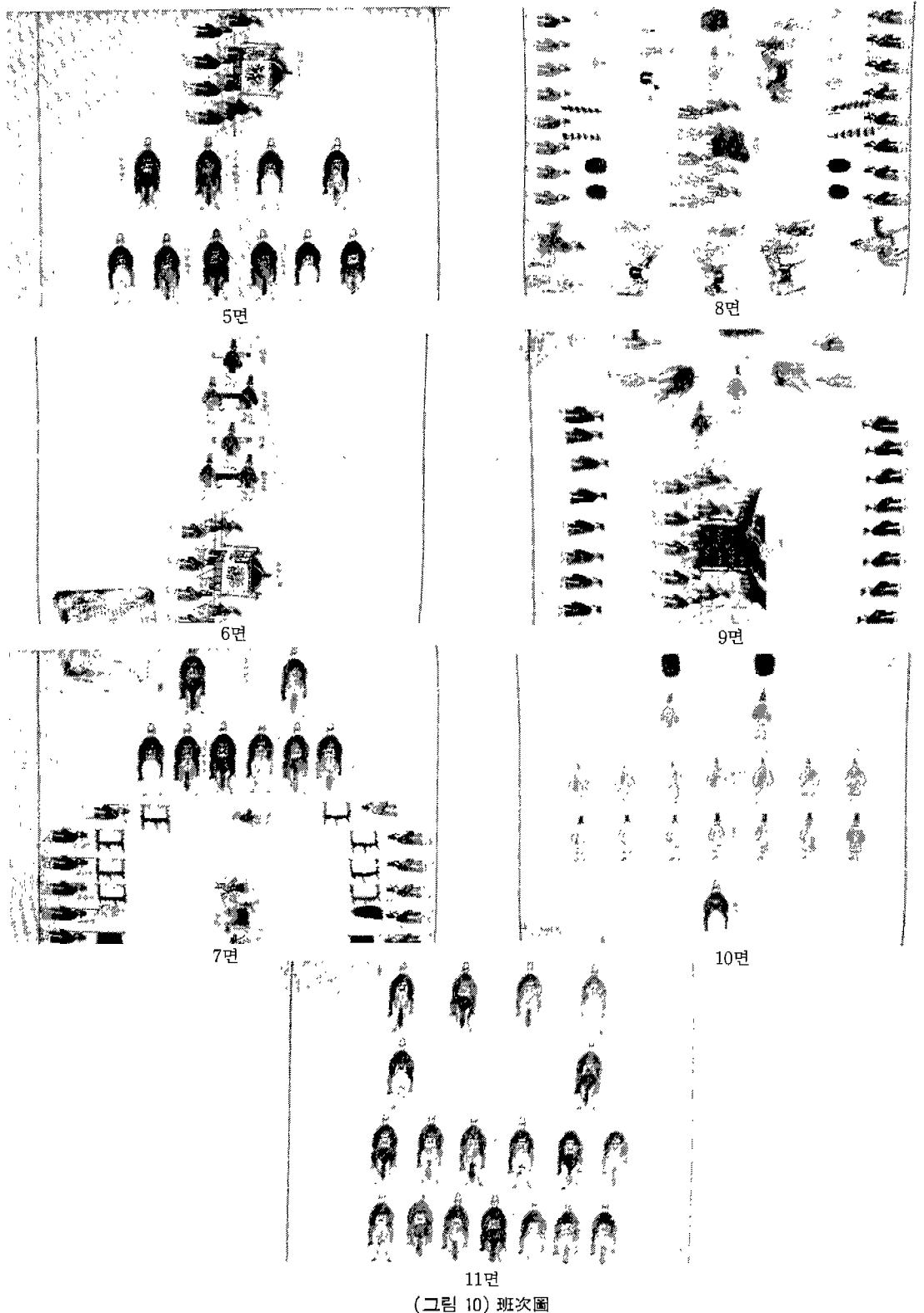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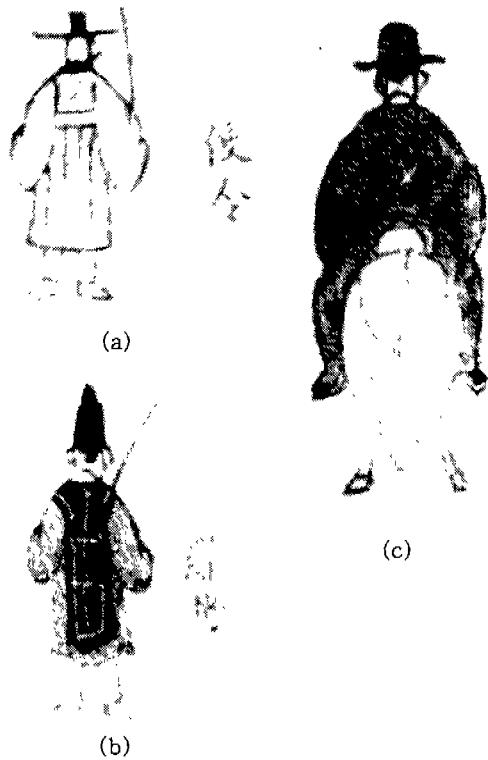
(그림 9) 戎 服

복식中 班次圖는 등장인물의 신분이 명확하게 적혀있는 관계로 11면으로 된 班次圖(그림 10)를 중심으로 신분별 복식을 살펴보고자 하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冊封圖에 나타나는 복식과도 비교하고자 한다.

1면에는 5인의 使命이 흑립에 청철력을 입고 행전을 치고 烏仗을 들고 있으며(그림 11-a), 그 뒤로 1인의 部官이 사모에 흥배가 있는 녹단령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뒤를 5인의 羅將이 두巾에 背半臂衣를 입고 半臂 안에 푸른 색의 衣를 입고 있으며 바지 밑은 행전을 치고 두석패를 들고 있다(그림 11-b). 羅將의 전의 형태는 쇠가래형이다. 羅將 뒤를 2인의 禁府都事が 말을 타고 따르고 있는데 사모에 녹단령을 입고 있다. 여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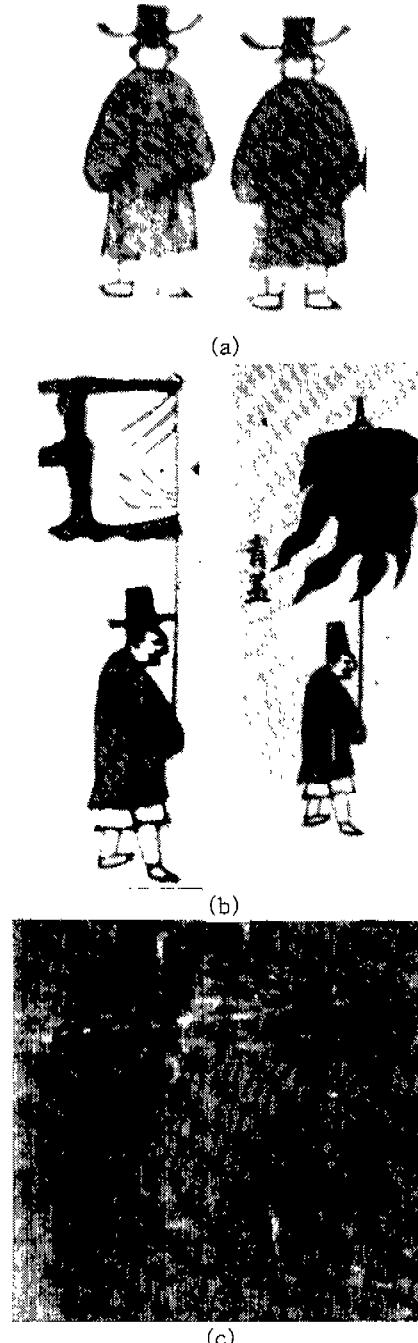


(그림 11) 使令, 羅將, 禁府都事의 복식

部官과 禁府都事が 같은 사모에 흥배가 있는 녹단령을 입고 있으나 녹색의 淺淡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11-c).

2면에는 중앙에 10명씩 2줄로 檻頭에 紅團領을 입은 鼓吹들이 보이며(그림 12-a), 그 뒤를 檻頭에 綠團領을 입은 악기를 맨 典樂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 뒤로는 香鼎을 맨 교군들과 양편으로 의장물을 든 기수들이 보이고 있다. 의장수중 맨 앞에 있는 紅蓋를 든 의장수는 紅帽에 青衣를 입고 있으며 다른 儀仗手들은 자주색의 럽의 형태와 같은 모에 흥의를 착용하였다(그림 12-b). 轎軍들은 紅帽에 紅衣를 착용하고 있는데 의의 형태는 겨드랑이 밑이 터져 있으며 길이는 무릎 위로 약간 올라간 정도의 길이이다. 冊封圖에서는 胸背를 가식한 綠團領을 입은 이가 의장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그림 12-c).

3면에는 중앙에 紅帽에 紅衣를 착용한 補席과 排案床을 든 이 뒤로 教命腰輿를 맨 교군들이 있



(그림 12) 鼓吹, 儀仗手 의복식

으며 그 뒤에 金冠朝服을 착용한 教命執事 2인의 모습이 보이고 紅笠에 紅衣를 입은 青蓋를 든 의장수와 紅帽에 紅衣를 입은 의장수가 보이며 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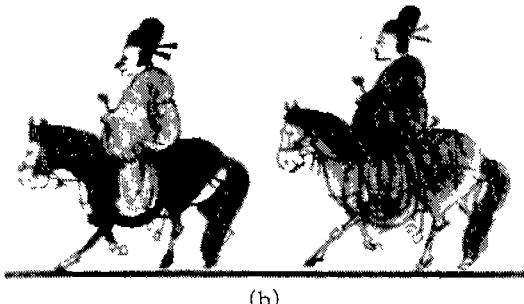
에 緑團領을 입고 흑대를 맨 細儀仗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4면에는 중앙에 金冠朝服을 착용한 補席執事와 舉案執事が 보이고(그림 13-a), 그 뒤로 홍모에 홍의를 입은 術席, 讀印案, 衡席, 排案床을 든 이들이 보이고 양편에는 사모에 緑團領을 입고 흑대를 맨 烏仗差備들이 가고 있다(그림 13-b).

5면에는 紅帽에 紅衣를 입고 竹冊彩輿를 맨 교군들이 가고 있으며 그 뒤로 금관조복을 착용한 执事들이 기마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 후면도로 그려지고 있다.



(a)



(b)

(그림 13) 執事, 烏仗差備의 복식

6면에는 紅帽에 무릎보다 올라간 길이의 양옆이 터진 紅衣를 입은 術席, 讀印案, 衡席, 排案床을 든 이들이 玉印彩輿를 맨 교군들이 보이고 있다. 홍의에는 가는 대를 매고 있으며 홍의 밑으로 백색의 무릎정도 길이의 소색포가 보이고 있다.

7면에는 金冠朝服을 착용한 玉印執事와 衡席, 讀印案, 舉案執事が 있다. 그 뒤를 黑笠에 青帖裏을 입고 印馬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고 양편으로 자주색 립에 홍의를 입은 외장수들이 축면도로 그려져 있다.

8면에는 중앙에 홍모를 쓰고 청의를 입은 青陽傘을 든 의장수의 옆에 황립에 양옆이 터진 青衣를 입은 의장수와 흑립에 짧은 길이의 청의를 입은 仗馬가 있고 그 뒤를 회색모에 회색의를 입은 교군들이 있으며 그 뒤를 황립에 청의, 흑립에 청의, 그 밑에 청색포를 입은 櫛齒馬가 있고 양옆으로, 자작색 립에 홍의를 입은 의장수가 보이며 그 뒤에 帷頭에 緑團領을 입고 흑대를 맨 儀仗郎廳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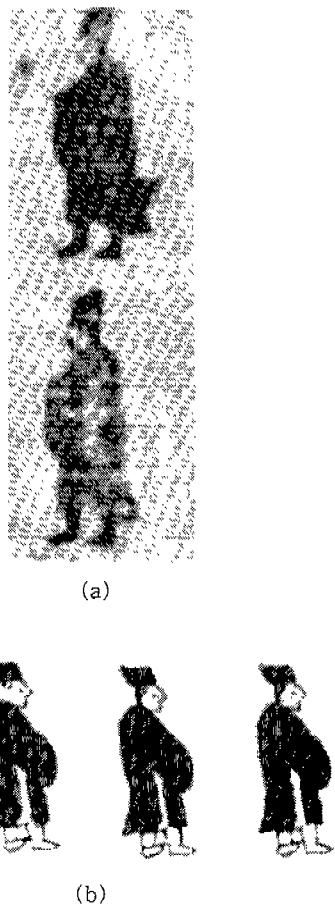
9면에는 홍모에 홍의를 착용하고 金, 鼓를 든 儀仗手와 紅帽에 青衣를 입고 청일산을 든 의장수와 紅帽에 青衣를 입고 青蓋를 든 의장수 뒤로 홍모에 홍의를 입은 上馬臺가 보이고 있다. 그 뒤를 회색모에 회색의를 입고 鼓을 맨 교군들이 보이고 연을 호위하는 별감들이 보인다. 別監服은 태종 5년 9월에 宣侍服을 상정하였으나, 世子宮의 侍衛別監, 小親侍는 定制가 없었는데, 세종 10년에 보면 복두에 자의를 사용하게 하였고³⁸⁾ 다시 31년에 각殿, 각宮別監 · 小親侍 및 典樂署 樂工은 직령 肘注音帖裏를 통착하게 하였으며, 차비시에는 단령을 착용하도록 하였다.³⁹⁾ 『經國大典』의 별감복을 보면 관은 자건을 착용하고 世子宮 別監은 청건을 착용하였으며, 청단령에 條兒를 띠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⁴⁰⁾ 『續大典』에서는 조건에 홍직령

38) 『世宗實錄』卷三十九 十年 正月

39) 『世宗實錄』卷百二十三 三十一年 正月

40) 『經國大典』禮典 儀章條

이나, 녹직령을 착용하도록 하였다.⁴¹⁾ 그러나 班次 圖에서 별감은 조건을 쓰고 겨드랑이 밑으로 터져 있는 紅衣를 입고 있고, 조아를 띠고 있으며(그림 14-a), 책봉도에서 轉을 호위하고 있는 別監은 無角 帚頭를 쓰고 紅袍를 입고 있으며 넓은 청색대를 띠고, 흑화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4-b). 따라서 별감의 복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别監의 복식

10면에는 紅帽에 青衣를 입고 青扇을 든 의장수 뒤로 흑립에 청철력을 입은 使令과 조건에 청의를 입고 그 밑에 청색포를 입은 書吏가 있다. 『經國大典』에 나타난 書吏의 복식을 보면 무각평정전에 단령을 입고 조아를 띠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²⁾ 반차도에서는 흑색의 유건을 쓰고 옆이 터져있고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담청색의 의를 입고 있으며 그 밑으로 청의가 보이며 바지에는 행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뒤를 金冠朝服의 都提調가 기마하여 따르고 있다.

11면에는 4인의 都提調, 2인의 都廳, 6인의 郎廳, 1인의 別工作과 6인의 監造官이 金冠朝服을 착용하고 기마하여 가는 모습이 후면도로 그려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1면의 반차도에 나타난 신분 별 복식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2〉

V. 결 론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의 문헌상의 기록과 11면으로 된 班次圖, 8폭으로 된 冊禮圖屏을 살펴본 결과 冊禮儀式에 參與하는 人物들의 服飾을 身分別로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王世子의 服飾은 크게 冠禮전에 冊封할 때의 服飾과 冠禮후 冊封時의 복식으로 대별될 수 있다. 관례전 책봉시의 복식은 雙童笄, 空頂幘, 七章服을 갖추며 冠禮後에는 冕服을 착용하고 책봉의식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班次圖와는 달리 冊禮圖屏에서는 文武百官들의 다양한 戎服의 形態로 朱笠에 青玄色 帖裹, 黑笠에 青玄色 帖裹, 黃笠에 紅帖裹등 복식에서 色相의 화려함을 볼 수 있었다.

셋째, 班次圖에서는 儀仗手들이 紅帽에 青衣를,

41) 『續大典』禮典 儀章

42) 『經國大典』禮典 儀章

〈표 2〉 반차도에 나타난 신분별 복식

	정면	후면	측면	기마	보행	의복	관모	기타
使令		○			○	청철릭	흑립	검
部官		○		○		녹단령(홍배)	사모	
羅將		○			○	아청색 창의, 청반비의	파변(고깔형)	검
禁府都事		○		○		녹단령	사모	금부도사와 부관의 상복에서 색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
鼓吹		○			○	홍포	복두	검은색 대
典樂		○			○	녹포	복두	악기
轎軍(황정교명요여)			○		○	홍의	홍피모자	
轎軍(평교자)			○		○	회색의	회색모	
儀仗手			○		○	청의	홍피모자	홍개
儀仗手			○		○	홍의	자주색 테가있는 모자	의장물
執事		○		○		조복	금관	
細儀仗			○	○		녹색, 아청색 단령	사모	검은색 대
鳥仗差備			○	○		아청, 녹단령	사모	세의장
印馬			○		○	청의	황립	밑에 청포, 세의장
仗馬			○	○		청의(무릎위, 발목길이)	황립	
闕闊馬			○	○		청의	황립	
儀仗郎廳			○	○		녹단령	사모	흑대
別監			○		○	홍색포(옆터짐)	조건	
使令		○		○		청철릭	흑립	검
書吏		○		○		청의	흑색건	
都提調, 提調		○			○	조복	금관	
儀仗手(金)			○	○		홍의	황모(약간 붉은기)	악기
儀仗手(鼓)			○	○		홍의	홍모	악기

靑帽에 紅衣를, 紅帽에 紅衣를, 紫笠에 紅衣를 착용하였으며 轎軍들은 홍모에 紅衣, 灰帽에 灰衣를 착용한 것으로 색상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반면 冊封圖에서는 儀仗手, 轎軍들이 衣 뿐만 아니라 胸背를 가식한 常服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넷째, 別監의 服飾에서도 班次圖에서는 巾에 옆이 터진 紅衣를 입고 履를 신고 있으나 冊封圖에서는 無角 帽頭에 紅袍를 입고 청색의 대를 띠고 黑靴를 신고 도열해 있는 것으로 別監의 服飾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王世子冊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文獻狀의 복식을 班次圖와 冊禮圖屏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복식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王世子 冊禮뿐 아니라 王世子嬪, 王世孫, 王世弟 冊禮時의 服飾도 研究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實錄考出」
- 「世宗實錄」
- 「中宗實錄」
- 「仁祖實錄」
- 「英祖實錄」
- 「正祖實錄」
- 「國朝五禮儀」
- 「國朝五禮儀序例」
- 「經國大典」
-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 劉頌玉,『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修學社, 1992.
- 박은순,『朝鮮時代王世子冊禮儀軌班次圖 研究』,韓國文化, 1993.
- 劉頌玉,『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柳喜卿,『韓國服飾史研究』,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 『民族文化大百科辭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ABSTRACT

The Study on the Costumes in Crown Prince Chac-Rae-Do-Gam Eui-gue(冊禮都監儀軌) and Eight Folding Screens for Chac Rae(冊禮)

Through eight folding screens for Chac Rae(冊禮) and Ban Cha Do(班次圖), we have learned the costumes of people who participate in Chac Rae ceremony(冊禮儀式) being accompanied by social positions.

Firstly, the costumes of crown prince can be classified in two parts. One is costumes of Chac Rae(冊禮) before Kwan Rae(冠禮), the other is costumes of Chac Rae(冊禮) after Kwan Rae(冠禮). Also we know the costumes of Chac Rae(冊禮) before Kwan Rae(冠禮) is consisted of SSangdonggae(雙童笄), Gong-jungchak(空頂幘), Chilchangbok(七章服). Meanwhile, the crown prince wore Myunbok(冕服) at Chac Rae(冊禮) after Kwan Rae(冠禮).

Second, Chakbongdo(冊禮圖屏) tell us various types of Youngbok(戎服) by blue-black and red colored chulik(帖裏).

Third, we can see Uijangsu(儀丈手) who wore Sangbok(常服) on Chakbongdo(冊禮圖屏) and know their brilliant costume colors on Ban Cha Do(班次圖) through Hongmo(紅帽) on Chunguei(青衣), Chungmo(青帽) on Honguei(紅衣), Hongmo(紅帽) on Honguei(紅衣), Violet-Lip(紫朱色笠) on Honguei(紅衣), meanwhile Kyokun(轎軍) wears Hongmo(紅帽) on Honguei(紅衣) and Hoimo(灰帽) on Hoiduei(灰衣).

Forth, regarding the costume of Byulgam(別監), Chakbongdo(冊禮圖屏) appears Chogun(阜巾) on Hongpo(紅袍), belting blue belt, wearing blackboots(黑靴). Meantime Ban Cha Do(班次圖) shows Chogun(阜巾) on Hongpo(紅袍) wearing shoes.

As reviewed above, we know various color and types of costumes through Chakbongdo(冊禮圖屏) & Ban Cha Do(班次圖) on Crown prince Chacraedogam(冊禮圖監), and would like to deepen Chac Rae(冊禮) of crown prince including the costumes of Chac Rae(冊禮) of the crown princess,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ce, the eldest brother of the king(王世弟).